

■ 도교육청, 원격수업 대상자 학교급식 희망 설문 조사했더니...

“학교 가서 먹겠다”... 초등 신청률 5~18%

학부모 “이동 불편하고 ‘낙인효과’ 우려... 현실성 없어” 미신청자 위한 농산물꾸러미·상품권 지원 등 대안 주문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는 초·중·고등학생 희망자에게 학교에서 ‘탄력적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수요조사 결과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행 전부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학교 현장에서 탄력 급식 시행 시 학생들의 등교 안전·생활지도부터, 급식확대에 따른 급식시간 배정 및 방역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

했다. 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원격 거리 거주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과 대상 제한에 따른 일종의 ‘낙인효과’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농산물 꾸러미나 상품권 지원, 전교생 등교 검토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3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도내 35개교(초 15, 중 9, 고 11)를 대상으로 탄력적 급식 운영(예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77%인 27곳(초 14, 중 8, 고 5)이 탄력적 급식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날 기준 수요 조사가 완료된 학교의 탄력적 급식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4.7%(35명)에서 최대 18%(124명)에 그쳤다. 고등학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23명이 신청했을 뿐이다.

이같은 결과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등하교 안전지도 및 방역 여건 등으로 대상자를 제한 운영한 학교가 많았다는 특이사항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학교에 탄력적 급식 운영(안)으로 ▷원격수업 대상 학생 중 희망학생 대상(1안)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등 결식우려 학생 대상(2안) ▷저소득층 학생 대상(3안) ▷오전·오후반 운영을 통한 전

교생 대상(4안) 등의 4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학교가 1~2안, 그 중에 2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탄력 급식 미실시 학교와 대상자 제한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등에 대한 중식 지원 대안 마련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재로서는 대안을 말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급식비 60%를 지원하고 있는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향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만 제시했다.

한편 도내 ‘탄력적 급식’은 지난 29일 고교 1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초·중학교는 4월 5일부터 운영된다. 오은범기자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제주시 최근 한달 22곳 점검해 16곳 적발

대형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공사장 2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부터 1개월 동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이행, 가설공사, 터파기, 흙막이공사 안전시공 준수, 안전시설물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형건축물 공사장 22곳 중 16곳에서 적발 사항이 발생했다. 16곳의 적발내역을 보면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11개소, 시공불량 3개소, 감리 부실 8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가설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음 ▷비산방지막이 떨어져 낙감 ▷난간 위에 물건 적치 등이다. 또 불시에 점검이 이뤄지면서 상주하는 감리 대상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잇따랐다.

제주시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부적정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시정토록 했으며, 안전시공 부적정 공사장의 경우는 추후 재시공을 통한 보수·보강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 점검 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전농로에 ‘수학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시 전농로에 수학 문화의 거리 조성이 추진된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수학 문화의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계획 구성 중으로, 제주도 및 도의회와 논의를 거쳐 올해 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연구원은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전농로에 위치한 분원 주변

거리에 수학조형물 및 LED아트 사인 설치, 수학 역사 및 테마 중심의 수학적문화와 수학자 명언을 활용한 공간을 비롯해 학생들의 창작물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올 하반기 인공기능, 로봇, 빅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SW·AI 체험관’도 개관한다.

제주과학체험관에서는 올해 학생 대상 실험실 개방 및 실험기기 지원을 통한 다양한 과학실험 기회를 부여한다. 오은범기자 eioh@ihalla.com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제주도는 식목일 및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20년 2건 등 10년 사

이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수에 의한 불(실화)이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소각이 29%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산불 감시원, 전문 진화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농기계에 기여 50대 숨저

50대 남성이 농기계에 기여 숨졌다.

30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빌라 인근 창고에서 A(58)씨가 농기계에 끼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활짝 핀 철쭉 30일 오후 4시를 기해 황사경보가 해제된 가운데 제주대학교 교정에 분홍빛 철쭉이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복권기금 68억여원 해녀 진료비로 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제주 해녀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68억 6800만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해녀들이 오랜 시간 잠수하며 생기는 질환인 이명과 저체온증, 잠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진료비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 둔 해녀중 소지자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현재 도내 전·현직 해녀 8992명(현직 3613명·전직 5379명)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매년 줄어드는 제주 해녀의 수를 보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이 우리의 문화유산인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75세 이상 4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제주시 예방접종센터 “전체 70%인 2만2442명 동의”

제주보건소는 4월 1일부터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관내 만 7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기준 전체 3만2317명 중 2만2442명(69.4%)이 접종에 동의했다.

접종은 등 직제 순서에 따라 4월 1

일 일도1동·2동 650명, 2일 일도2동 650명, 5일 일도2동·이도1동 650명, 6일 이도1동 175명에 이어 향후 읍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 6일부터는 노인시설 40개소 800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 1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는 평일(월~금)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접종 후에는 3일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약일에 꼭 방문·접종해야 귀중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추차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는 오는 5~6월 사이 각 보건지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은 아직 정확한 접종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4월 중순부터 만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내 접종 대상자 1만 6376명 중 1만219명(62.4%)이 29일 현재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은범기자



청정 **魚** 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축

경

강 제 철 (금우수산)	고 승 범 (영재호)	김 묘 생 (해양호)	김 일 택 (경랑호)
박 인 숙 (해녀)	좌 덕 부 (부민호)	현 대 진 (삼익호)	홍 경 자 (해녀)

한림어선주협회장
김 정 철 (621영신호)

한림수협중도매인협의회장
홍 진 희 (태진수산)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 복지! 교육! 지역민과 함께 융성하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총사업비 170억원
국비 68억원(40%) 지방비 68억원(40%) 자담 34억원(20%)

1층 마트(234평) 활어워터장(76평) 수산물시장(135평) 수협은행(105평)
2층 식당(136평) 물리치료실(46평)
3층 대면회정(187평) 목욕탕(279평) 체력단련장(67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www.hallimsuhyp.co.kr (064)795-0522~5